



미 증시, 소비자물가 급등세 진정에도 약세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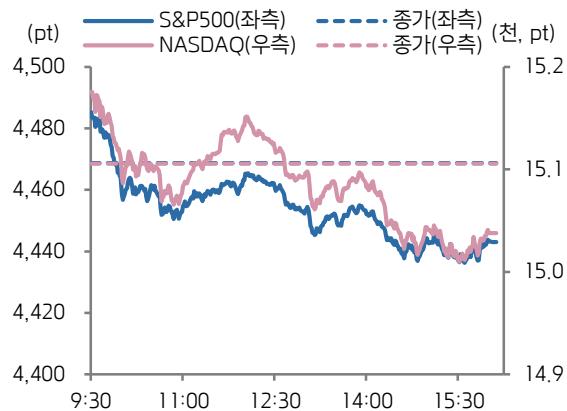
14일 (화) 미국 증시는 장초반 8월 소비자물가 지표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, 이후 애플의 아이폰 13 실망감, 경기 둔화 우려 재확산, 9월 FOMC 경계심리 지속 등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(S&P500 -0.57%, 나스닥 -0.45%, 다우 -0.84%, 러셀 2000 -1.37%)

개장 전 발표된 8월 미국 CPI는 전년대비 +5.3%로 예상치에 부합, 전월(+5.4%)보단 소폭 하락한 수준을 기록. 근원 CPI는 +4.0%로 예상치(+4.2%)와 전월(+4.3%)를 모두 소폭 하회.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음주 FOMC를 앞두고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었다는 안도감으로 S&P500은 장 초반 0.3% 상승 출발.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을 중심으로 연준 테이퍼링 타임라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목을 받으면서 테이퍼링 부담은 지속됨.

전일 뉴욕 3 대 지수 중 나스닥만 하락 마감했던 가운데 이날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음. 연일 전업종 하락했고 그중 에너지, 금융, 산업재 소재 등 업종들의 낙폭이 가장 컸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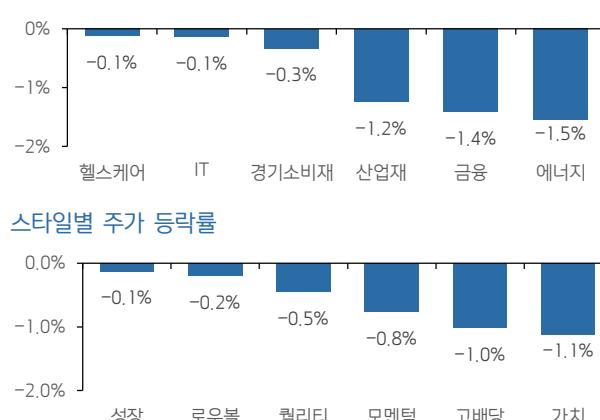
이날 장중 하락 전환 요인은 애플 이벤트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. 최근 에픽게임즈 소송 이슈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주가에 추가적인 매도세를 야기시킴. 애플의 아이폰 13의 주목할 만한 변화들은 1)향상된 배터리 용량, 2)더 큰 메모리 용량, 4)새로운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, 5)더 작아진 상단 노치.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 모델은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탑재와 향상된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 탑재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특징주

오라클(-2.8%): 실적 부진에 하락. 매출 97.3 억 달러 vs 예상 97.7 억 달러. 매출 성장률 전분기 8%에서 4%로 둔화.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EPS 예상 1.08 달러보다 높은 EPS 레인지 1.09~1.13 달를 제시.

아메리칸 익스프레스(-1.2%):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에 하락.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(-1.4%), 델타 에어라인(-1.8%), 유나이티드(-2.2%) 등 항공주들과 더불어 보잉(-1.4%) 모두 하락.

컴캐스트(-7.3%): 당사는 케이블 비즈니스 사업 성장이 8월에 둔화되었다고 언급.

PNC(-3.1%): 미국 국채 2~10년 스프레드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줄었다고 언급. JP 모건(-1.8%), 뱅크오브아메리카(-2.7%), 씨티그룹(-2.5%) 등 다른 은행주들도 하락.

애플(-1.0%): 장중 아이폰 13 이벤트 진행. 기존 라인들인 13, 13 미니, 13 프로, 13 프로 맥스를 공개. 이번 플래그십의 하이라이트는 카메라와 프로세서칩 기술 향상.

マイ크로소프트(+0.9%): 모건 스텐리의 목표가 하향조정(331→305 달러)에 불구하고 상승. 목표가 하향은 배당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. 투자의견은 오버웨이트로 유지.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443.05	-0.57%	USD/KRW	1,170.74	-0.44%
NASDAQ	15,037.76	-0.45%	달러 지수	92.65	-0.03%
다우	34,577.57	-0.84%	EUR/USD	1.18	+0.03%
VIX	19.46	+0.46%	USD/CNH	6.44	+0.02%
러셀 2000	2,209.99	-1.37%	USD/JPY	109.68	-0.01%
필라. 반도체	3,449.39	-0.01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285.46	-1.13%	국고채 3년	1.540	+1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062	+1.7bp
Eurostoxx50	4,191.67	+0.05%	미국 국채 2년	0.207	-0.6bp
MSCI 전세계 지수	737.62	+0.05%	미국 국채 10년	1.284	-4.2bp
MSCI DM 지수	3,126.10	+0.13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301.54	-0.57%	WTI	70.46	+0.01%
MSCI 한국 ETF	84.36	+0.14%	금	1807.1	+0.7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주) (*)는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 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**한국 ETF 및
야간선물 동향**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14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84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1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172.4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아이폰 13 공개 이후 애플 주가 부진에 따른 국내 관련 밸류체인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
2. 장중 발표되는 중국의 8 월 산업생산, 소매판매 결과
3.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2차전지 등 친환경 테마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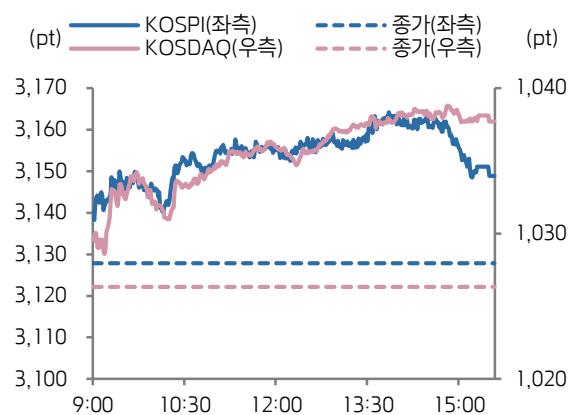
8 월 소비자물가(5.3%YoY, 전월 5.4%, 예상 5.3%)의 급등세가 진정 됐음에도, 미국 증시가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인 배경은 신규 상승 모멘텀 부재 속 경기 둔화 우려 영향이 커던 것으로 판단. 물론 한동안 미국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를 견인했던 중고차가격(41.7%→31.9%YoY, 0.2%→-1.5%MoM)은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, 항공, 호텔, 운송 등 여타 항목의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점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개선세가 위축됐다는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.

더 나아가, 글로벌 물류, 항만 등 공급 차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, 추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이 8 월 소비자물가를 주식시장에서 중립 이상의 재료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. 금번 소비자물가 결과로 9 월 FOMC 에서의 테이퍼링 공식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은 안도 요인. 그러나 성명서 및 점도표 상 연준의 경기 판단과 금리 전망치의 변화 여지가 있으므로, 9 월 FOMC 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.

이상의 요인을 감안 시, 전거래일 강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도 금일에는 약세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. 미국 8 월 소비자물가 급등세 진정에도, 델타 변이 발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15 일, 16 일 미국의 산업생산, 소매판매 등 실물 경제 지표 결과를 확인하려는 대기 심리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. 또한 전거래일 아이폰 13 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, 국내 증시에서도 아이폰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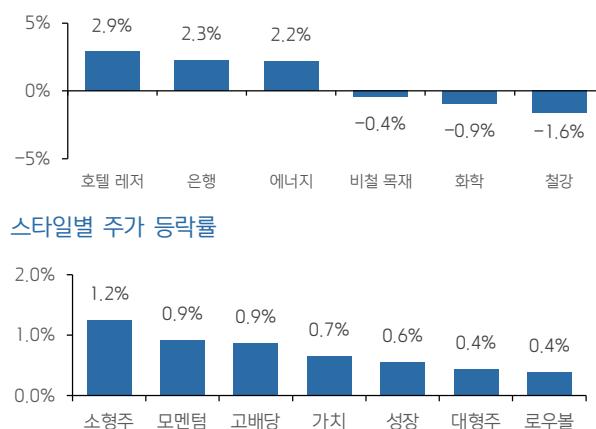
금일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의 산업생산(5.8%YoY, 전월 6.4%), 소매판매(7.0%YoY, 전월 8.5%) 지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. 다만, 8 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8 월 중국 경기 모멘텀 부진은 일정부분 선반영됐으며 중국 정부의 부양의지도 높아졌음을 감안할 필요. 따라서, 중국의 8 월 실물 경제 지표가 큰 폭의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이들 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E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